

## 중국과 일본의 대(對)아프리카 문화외교 : 전략 비교와 언론담론 분석\*

김 영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과 일본의 대아프리카 문화외교 정책과 그 실천 양상을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신문 기사 분석을 통해 비교한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기치 아래 정부 주도의 공공외교 정책을 펼치며, 공자학원, 루반공방 등 기술 교육과 문화 교육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쿨 재팬'과 '올 재팬' 전략을 앞세워 대중문화를 비롯한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중심의 민간 산학 종합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일본 문화외교 전략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양국의 주요 신문인 『인민일보』와 『아사히신문』의 최근 아프리카 관련 보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국가 주도의 문화외교를 강조하며, 일본은 상호협력과 감성적 접근으로 문화외교를 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의 대아프리카 문화외교의 구체적 사례가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문화외교 정책과 전략의 방향성,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아프리카, 문화외교, 중국, 일본, 인민일보, 아사히신문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C2A02086919).

## 1. 머리말

아프리카 대륙은 정치,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무궁무진한 산업 발전 가능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함께 대응하며 국제정치 무대에서 단일한 힘을 보여 주고 있다. 다양한 언어만큼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아프리카 대륙은 문학, 음악, 춤, 패션, 영화, 음식, 종교 등에서 전 세계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아프리카 대륙은 글로벌 사회에서 정치, 경제, 안보, 환경에서의 협력 대상뿐 아니라 문화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 대륙의 국제적 위상이 점점 더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어떻게든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개선, 발전시키려 한다. 이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을 비롯해 이탈리아, 튀르키예, 인도 등 다수의 국가는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아프리카와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박종대 2024).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기존의 단발성, 일회성 교류 협력이 아닌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방편으로 문화외교에 주목해 보았다. 21세기 들어 문화외교가 국가의 외교 전략에서 점점 더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여러 국가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대 아프리카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 발전으로 인해 글로벌화는 가속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각국 간의 문화교류는 더욱 빈번해지고 심화되고 있다. 이제 문화교류와 협력은 국가 간 이해와 신뢰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면서 각국의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문화외교를 위해, 인접

국이자 아프리카와의 교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인 중국과 일본의 예를 참고해 보고자 한다. 대아프리카 외교를 시작한 이후, 중국과 일본은 아프리카와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왔으며, 2000년대 이후 문화외교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과 일본의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아프리카 문화외교의 구체적인 정책과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이후 언론 기사를 통해 국가의 외교적 입장과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문화외교 전략과 실천 내용이 자국의 주요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기 1년여 전인,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의 『인민일보』와 일본의 『아사히신문』에 실린 아프리카 관련 보도를 분석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된 내용은 한·아프리카의 지속적이고 공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문화예술교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중국의 대아프리카 문화외교 전략과 실천

### 1. 국가 전략과 문화협력 프로그램

중국과 아프리카와의 외교 관계는 1956년 이집트와의 수교로 시작되어 1969년에는 38개국으로 늘었을 만큼 놀라운 속도로 우호 관계를 넓혀 왔다. 중국은 먼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을 도왔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국제 외교에서 중국의 주장을 지지했다. 서정경(2024)은 중국과 아프리카의 외교 관계가 제국주의·패권주의·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정의로운 투쟁이자 제삼 세계 국가의 민족 독립 수호 지원이며 전략적 문제로 맺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1990년대 이후부터 중국과 아프리카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교 협력이 이루어졌고,

중국 외교부장은 새해 첫 방문지를 아프리카의 국가로 정하게 되었다. 2000년부터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CACF, China and Africa Cooperation Forum)’을 창설하고 3년 주기로 대규모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중국의 아프리카 외교 형태가 양자 중심에서 다자적 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을 설립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종섭(2022)에 따르면 중국은 대통령이나 총리 관저, 의회 건물, 외교부 청사, 군·경시설 등 상징성 있는 공공건물이나 랜드마크 건설을 진행함으로써 각국 정부와 국민의 환심을 사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펼쳤다. 2008년 이후 10년 동안 최소 40개국에서 186건의 공공건물 신축·보수 공사를 중국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프리카 문화와 정치적 상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가 엘리트들과 유대를 강화하며 호감을 얻는 효율적 방법이 될 수 있었다.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역시 경제협력뿐 아니라 문화외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서는 교육·의료 지원 및 협력도 같이 언급되며, 중국은 지원금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로 친중파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공공외교를 활용해 아프리카에 자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지영(2020)에서 보듯 시진핑 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의 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력, 군사력, 문화 역량 그리고 다각적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계획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구상했다. 태평양에서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 유럽까지 이어지는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이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목적이다. 또 2015년에는 첨단기술 강국으로의 부상을 알린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알렸다.

중국외교부 홈페이지<sup>1)</sup>에서 볼 수 있듯이 2021년 11월 29-30일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 발표된 정책인 다카

1) [https://www.mfa.gov.cn/web/wjzbhd/202112/t20211202\\_10461174.shtml](https://www.mfa.gov.cn/web/wjzbhd/202112/t20211202_10461174.shtml) 참조.

르 행동 계획(2022-2024)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발전, 인문, 평화와 안전, 녹색 발전, 국정 운영 경험 교류,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구축 관련 협력 방안을 결의했다. 이중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룬 인문 협력 정책은 관광, 문화, 뉴스·미디어, 학자·싱크탱크, 지방·민간 교류, 청년·여성 분야로 나뉘어 계획되었다. 분야별로 중국의 지원 방향을 살펴보자면, 우선 ‘관광’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아프리카 관광 활성화, 아프리카 국제관광전시회와 중국 국제관광박람회 지원, ‘중국·아프리카 문화 및 관광 연구 협력 계획’을 실시하여 아프리카 관광 관련 인재 양성과 관광 역량 강화, 관광 교류를 확대하고 강화하여 중국인의 아프리카 관광 장려, 아프리카의 관광상품 개발과 안전한 관광 환경 제공에 협조하기로 한다.

‘문화’ 분야 정책으로는, 문화연구 기관 간 교류 협력 촉진, ‘일대일로’ 원칙하의 문화교류, 연합 고고학, 유적 보호 및 복원, 박물관 전시 교류, 세계 문화유산 홍보,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등 문화유산 분야의 교류 협력, 중국·아프리카 간 문화센터 설치 추진, 지방 문화교류 장려 차원에서 양측 우호 도시 간 문화교류 및 협력 메커니즘 구축과 활용<sup>2)</sup>, 민간 교류 협력 촉진과 민간 교류 ‘브랜드’화 추진<sup>3)</sup>, 교류 플랫폼 구축과 활용<sup>4)</sup>을 들 수 있다.

‘뉴스·미디어’ 정책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미디어를 통한 대아프리카 공공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적극적인 뉴스·출판 분야의 교류와 협력 추진, 프로그램 공동 제작, 미디어 인력 상호교류 협력, 영상물 교류 강화, 중국에서 아프리카 영화제 개최와 아프리카에서 중국 영화제 개최, 아프리카 방송 미디어 역량 구축과 발전 지원 등이 그 내용이다. 이미 케냐와 탄자니아에는 중국 관련 라디오 방송국을 개

2) 실크로드 국제 극장 연합, 박물관 연합, 예술제 연합, 도서관 연합, 미술관 연합 등.

3) ‘행복한 춘절’, ‘중국·아프리카 문화 초점’ 등의 브랜드화 된 문화행사의 교류 활동 추진.

4) ‘실크로드 국제 예술제’, ‘해상 실크로드 국제 예술제’, ‘실크로드 국제 문화 박람회’.

설해 중국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정부 중심의 외교에서 최근에는 싱크탱크, NGO, 민간단체 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자·싱크탱크’ 정책으로는 아프리카 대학 싱크탱크 세미나 및 연구 프로젝트 지원, ‘중국·아프리카 대학 20+20 협력 계획’과 ‘중국·아프리카 싱크탱크 10+10 협력 파트너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연구 교류 강화와 공동 연구 수행, ‘일대일로’ 아프리카 연구 연맹 건설 지원, 연구 정보화 협력 추진 등이 있다.

‘지방·민간 교류’ 정책으로는 지방 및 민간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아프리카와의 실질적인 협력에 참여하고, 협력 방식을 다각화하도록 장려한다. ‘중국·아프리카 민간 포럼’을 활용해 민생 분야 민간기구의 실질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비정부기구의 실크로드 민간 조직 협력 네트워크 및 ‘실크로드 가족’ 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중국·아프리카 ‘일대일로’ 공동 건설, ‘중국·아프리카 민간 우호 단체 담당자 회의’ 플랫폼 역할 강화, 무역을 통한 민간 교류 확대, 중국·아프리카 노조 간 교류 강화, 스포츠 분야 교류 협력 지원에 힘쓴다. ‘청년·여성’ 정책으로는, 자원봉사와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여 ‘중국·아프리카 미래 지도자 대화’ 소통 플랫폼 구축, 중국·아프리카 청년 서비스 포럼, 여성 포럼, 청년 지도자 포럼 개최, 성평등 및 여성 권리 증진 문제에 대한 교류 협력 강화, 고위급 여성, 여성 기업인 간 상호교류 장려, 여성 분야 소액 물자지원 및 기술 훈련 프로젝트 실행, 장애인의 교류 협력 강화, 재할, 교육, 취업 분야의 실질 협력 프로젝트 공동 추진,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과의 대화와 협력 강화에 힘쓴다.<sup>5)</sup>

특히 아프리카 대륙 내에도 중국문화센터와 공자학원을 통해 중국의 문화, 역사, 언어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확립하며 문화 전파와 문화 수출을 실천하고 있다. 베냉,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이집트,

---

5) 아프리카정당 여성 연수반 지원 및 ‘100명의 주중 여성 외교관이 바라본 중국’ 행사 개최.

모로코 등 6개국에는 중국문화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중국의 문화와 담론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운영되는 공자학원은 2025년 현재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인 48개국에 78개소가 개설되어 있다. 즉, 중국 외교 노선이 공공외교로 강화되면서 문화예술교류를 ‘일대일로’ 사업으로 간주하고, 외교부, 문화관광부, 공자학원이 주관하는 대아프리카 문화교류 행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2. 『인민일보』에 나타난 문화외교 담론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중국의 대아프리카 문화외교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언론매체라 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인민일보』에서 ‘아프리카’라는 키워드로 관련 기사를 분석해 보았다. 조사 기간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던 때를 기준으로 약 1년 전, 2023년 7월 19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진행했으며, 이 기간에 250개의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기사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8개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보도 횟수 상위 국가

국가명	남 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케냐	탄자 니아	에티오 피아	나이지 리아	잠비아	나미 비아
기사 수	40	22	19	16	16	10	7	6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는 브릭스 관련 이슈로 자주 다루어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중국의 최대 아프리카 교역국으로서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다수의 행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는 우주항공 협력 내용 역시 다루고 있으며, 케냐는 일대일로 정책의

첫 아프리카 시범국이자 탄자니아와 함께 대형 건설 사업 대상으로 언급되었다.

이를 다시 자주 다루었던 키워드로 분석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보도 횟수 상위 키워드

주요 키워드	일대일로	경제	무역	브릭스	건설	청년 (청소년)	하나의 중국	교육·연수
기사 수	43	35	28	25	19	13	11	11

특히, 2023년은 ‘일대일로’ 전략 발표 10주년이었다.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외교부 고위급 인사의 축사와 브리핑 등에서 일대일로가 자주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경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디지털, 자동차, 모바일, 에너지 등의 기술 협력에 대한 보도가 자주 보였다. 또 무역 관련 이벤트와 박람회 개최 소식, 중국 기업의 진출 및 투자를 통한 아프리카 현지 인프라 건설 기사를 볼 수 있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공통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프리카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기사도 있다.

해당 기간의 각 기사를 분야별로 재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분야별 보도 횟수

분야	기사 수	비율
정치·외교	117	46.8%
경제·무역	47	18.8%
문화·관광	27	10.8%
교육·연수	24	9.6%
지원·건설	24	9.6%
기타	11	4.4%

문화외교에 속하는 분야로는 ‘문화·관광’과 ‘교육·연수’이다. 해당 조사기간 동안 문화외교 관련 기사는 약 20% 정도였다. 다양한 문화와 관련 행사 소식, 전시, 공연, 도서 등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상호 문화교류 소식이 중심이다. 특히, 중국문화를 아프리카에 알리고, 아프리카의 문화를 중국에 소개하는 기사들이 많아 중국과 아프리카의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연수 분야에서는 공자학원과 루반공방(LubanWorkshop) 등의 교육 기관 중심 활동 기사들을 찾을 수 있었다. 중국어 교육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기술 연수,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 상호 교육 협력과 인재 양성 관련 내용이 자주 다루어졌다. 중국으로 초청하여 기술, 문화를 가르치는 연수반을 운영하거나 아프리카 현지에서 공자학원을 통해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루반공방을 통해 기술 교육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정책 등이 소개된 내용이였다.

특히 루반공방 관련 기사는 눈여겨볼 만하다. 중국은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루반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2019년 지부티에 첫 루반공방을 세운 이후, 2024년 1월 기준 15개국 17개소가 개설되어 있다.<sup>6)</sup> 루반공방은 중국의 전통과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고대 중국의 목공예 거장 ‘루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현지 주민들에게 적합한 직업 기술 교육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가나와 농업 교육, 지부티와 철도 기술과 운영 교육, 에티오피아와 인공지능 교육 협력을 진행 중이다. 케냐의 경우 세계적 대기업인 화웨이사가 케냐의 메루 과학기술대학교(Meru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루반공방 설치와 첨단 장비를 제공하고, 케냐의 기술 교육을 강화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중국 텐진시 직업 대학과 공동으로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볼 수 있다.<sup>7)</sup> 루반공방은 각국에 적

6) [http://www.lubanworkshop.cn/html/2024/cgtg-lb\\_0903/536.html](http://www.lubanworkshop.cn/html/2024/cgtg-lb_0903/536.html) 참조.

지부티, 케냐(2개소),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리, 나이지리아, 이집트(2개소), 코트디부아르,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모로코, 가봉, 베냉, 르완다, 탄자니아.

합한 기술 전수와 실무 훈련이라는 직업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한다. 직업교육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위한 중국의 브랜드 프로젝트 루반공방은 중국과 외국 간의 문화교류 촉진은 물론, 더 나아가 이렇게 양성된 인재들이 친중 성향의 사회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주를 주제로 한 ‘나의 꿈’ 그림대회 진행 기사도 주목할 만하다.<sup>8)</sup> 이 대회는 먼저 2024년 3월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중국 사무국, 중국 유인우주정거장공실(CMSEO), 아프리카 국가 주재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아프리카 42개국에서 약 2,000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가했다. 2024년 5월에 10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으며, 이 작품들은 5월 30일 발송된 중국 선저우 16호에 실려 텐궁우주정거장에 도착해 그곳에 전시되었다. 또한 선저우 16호 임무에 참여한 중국 우주인 3명은 텐궁우주정거장에서 영상 연결을 통해 지구에 있는 관중에게 작품을 보여주고 소개했다. 이 이벤트는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우주에 대한 다양한 꿈을 키우고, 미래의 중국-아프리카 우주 협력에 대한 희망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과 아프리카의 우주 협력이 미래 세대가 지 공고히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은 우주 프로그램의 대외 확장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아프리카에 우주 동맹을 구축하고 기술 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루반공방이나 우주항공 협력 정책을 통해 보듯이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지원이나 정치 전략적 협력이 아니라, 중국의 최첨단 기술력을 홍보하면서 인재 양성과 교류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 경제, 과학 등 협력 정책 전반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문화교류와 인재 양성, 미디어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이미

7) <https://en.people.cn/n3/2023/0908/c90000-20069347.html> 참조.

8)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3-06/07/nw.D110000renmrb\\_20230607\\_12-02.htm](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3-06/07/nw.D110000renmrb_20230607_12-02.htm) 참조.

지를 개선하고 우호감을 높이려 노력한다. 특히 2016년, 중국 국영방송 CCTV와 아프리카 전역의 미디어 기관들은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미디어 협력 및 교류 도모를 위해 아프리카링크연합(ALU, Africa Link Union)을 결성했다. 이후 CCTV는 아프리카 전역에 방송국을 개설해 신식민지주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중국의 지원과 문화에 대한 긍정적 내용을 방영하면서 지속 가능한 중국·아프리카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III. 일본의 대아프리카 문화외교 전략과 실천

#### 1. 일본의 가치외교와 문화외교정책

변용(2013)이 설명한 일본의 대아프리카 외교사를 참고하면, 일본은 1970년대 석유과동으로 인한 자원 확보를 위해,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에 선출되기 위해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1980년대는 기업을 통한 ODA를 크게 늘렸고, NGO가 적극적으로 ODA 논의에 개입해 인도주의적인 담론이 형성되었다. 1989년 원조 공여국 1위가 된 일본은 이후 수원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일본 역시 문화외교 방안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인간의 안전보장과 가치외교를 주요 외교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필동(2014)에서 보듯 홍보문화외교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면서, 일본 문화 자원을 이용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펼쳤다.

모리 전 수상은 2001년 아프리카를 방문한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를 포괄한 사회발전 및 인간안보<sup>9)</sup> 발전 없이는 아프리카의 발전은 없다고

9) 인간안보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기아, 질병, 폭력 등의

하면서 ‘인간안보’ 개념을 외교 담론화했다.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계해 아시아-아프리카 포럼(Asia-African Forum), 아시아-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Asia-Africa Business Forum) 등을 조직하였다. 김현정(2024), 배묘정(2024)에 따르면, 2004년 고이즈미 내각 시절부터 일본 정부는 문화를 외교적 도구로 활용하여 대중문화, 첨단기술, 전통 요리 등 다양한 산업을 국제적으로 홍보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쿨 재팬(Cool Japan)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제2차 아베 내각도 쿨 재팬 전략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힘써서, 2012년에는 쿨 재팬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2013년에는 민관 협력 쿨 재팬 펀드 운용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문화외교 정책이 점점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전열 외(2013) 등이 지적하듯이, 일본의 전통문화와 예술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이나 만화·애니메이션과 같은 일본 대중문화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국가 이미지를 구축해 문화적이고 감성적인 국제관계를 구축하려는 효과적인 소프트파워 외교 전략이다.

이러한 국가 정책은 대아프리카 외교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일본외무성 홈페이지<sup>10)</sup>를 살펴보면, 외교정책 아젠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토픽(TOPIC) 메뉴바가 쉽게 눈에 띈다. 특히 외교정책 가운데 홍보 문화외교를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여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겠다는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정책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는데, 공공외교 문화교류로써 일본 특화 문화예술 행사를 글로벌 행사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쿨 재팬 전략의 주요 수단인 일본 만화와 관련해, 외무성에서는 2007년부터 ‘일본국제만화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인기 만화 캐릭터 ‘도라

---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상태로 경제적 안보, 식량 안보, 보건 안보, 환경 안보, 개인 안보, 공동체 안보, 정치적 안보로 분류된다(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4:22-24).

10)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koryu/index.html> 참조.

에몽'을 애니메이션 문화대사로 임명했다. 이런 내용은 외무성 홈페이지 토픽바에서 그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만화상 관련 토픽바의 디자인 역시 만화의 특성인 말풍선을 사용해 제작함으로써 친근함을 높였다.<sup>11)</sup>

한편, 일본국제만화상은 해가 거듭될수록 참여국과 참여 작품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회 때 26개국 146 작품으로 시작해 최근 2024년 18회 때는 95개국 716편이 출품되었다. 아프리카 작가들의 응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제2회 때 5편이 출품된 것을 시작으로 16회 때는 13편의 작품, 2024년에 개최된 제18회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총 31편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이는 전체 716편의 출품작 중 약 4.3%를 차지하며, 아프리카의 참여 증가율을 보여준다. 또한, 18회 대회에 적도기니와 나미비아가, 전년도 제17회 대회에서는 에티오피아, 코모로, 세네갈, 르완다가 처음으로 참가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2)</sup>

최근 일본의 외교정책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sup>13)</sup>을 통해서 새로운 다자주의, 공영협력 체제에 따른 개발협력 전략을 실천하고자 한다. 아시아·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 정책은 평화수호, 기후, 식량 안보, 세계 보건, 사이버 안보 분야의 실질 협력, 경제 성장, 항공 분야에 주안점을 두며 민관 협력을 강조한

11)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koryu/pop/index.html> 참조.

12) 아프리카 출신 작가들의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제17회 튀니지 작가 Ahlem Khedri가 *Spectrum*으로 특별장려상, 15회 부르키나파소 Cyprien Kondi Sambu의 *The African child against covid-19*, 13회 베냉공화국 Gjimm Mokoo의 *Migrant*, 앙골라 Bomcomix e Gildo Pimentel의 *DiKiXi-The Reconciliation part1*, 11회 남아프리카공화국 Umlando Wezithombe의 *Mandela*, 10회 코트디부아르 Tape Zato의 *Adjame's thief*, 8회 부르키나파소 Cyprien Kondi Sambu의 *Le Prince Moaga*, 7회 부르키나파소 Cyprien Kondi Sambu의 *Le Directeur contre la crauache*, 6회 부르키나파소 Boureima Nabaloum의 *Les dix rituels de l'initiation* 가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13) [https://www.mofa.go.jp/policy/page25e\\_000278.html](https://www.mofa.go.jp/policy/page25e_000278.html) 참조.

다. 또한 1993년부터 시행해 일본과 아프리카에서 번갈아 개최하며 2025년 제9회째를 맞는 ‘도쿄 국제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Ministerial Meeting)’<sup>14)</sup>는 단순한 개발 협력을 넘어 일본의 정치·경제·외교전략 및 안보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아프리카 정책을 잘 보여준다.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여 지도자들과의 대화로 일본과 아프리카 상호교류 협력의 큰 틀을 마련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주도하는 정책으로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주관하는 ABE 이니셔티브(African Business Education Initiative for Youth)<sup>15)</sup>가 있다. 2014년부터 실시한 청년을 위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교육 이니셔티브로 아프리카 청년을 일본으로 초청해 석사학위 수여 후, 일본 기업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일본 기업이 아프리카 현지 인력을 개발해 일-아프리카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문부과학성은 또한 일-아프리카 간 대학 교류를 지원한다. 일례로 홋카이도 국립대학은 2020년부터 문부과학성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의 국제적 전력 강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아프리카와 교류를 시작했다. 특히 잠비아에 루사카 아프리카사무소<sup>16)</sup>를 개설하고 일본 유학 코디네이터 ‘니지이로’<sup>17)</sup>를 설치 운영 중이다. 또한 홋카이도 국립대학은 잠비아대학과 국제 수의학 및 보존의학 교육 프로그램(IVCMPEP. International Veterinary and Conservation Medicine Education Program)<sup>18)</sup>을 시행하고 있다.

도쿄외국어대학과 교토대학 역시 문부과학성의 ‘대학 간 교류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국제 교육 협력 프로그램인 이노

14) <https://www.mofa.go.jp/region/africa/ticad/index.html> 참조.

15) <https://www.jica.go.jp/english/activities/> 참조.

16) <https://www.hokkaido-university-lusakaoffice-zm.com/> 참조.

17) <https://wp3.tufs.ac.jp/nijiuro/ko/zambia-hokkaido-university/> 참조.

18) <https://africa.vetmed.hokudai.ac.jp/en/> 참조.

베이션 아프리카 프로그램(IAFP. Inovation Africa Programme)<sup>19)</sup>을 운영했다. IAFP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학술 교류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쿄외국어대학교와 교토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아프리카와 일본 간의 학생 및 연구자 교류를 촉진해 SDGs를 달성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르완다, 가나,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의 대학이 교류 파트너 대학이었으며, 외무성, JICA, 민간 기업, NGO 등 다양한 기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협력했다.

이외 일반사단법인 아프리카협회(The Africa society of Japan)<sup>20)</sup>의 활동도 눈여겨볼 만하다. 1960년 창립된 아프리카협회는 한국의 한·아프리카재단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한다. 즉, 문화행사, 세미나, 출판물 통해 일본의 긍정적 이미지를 아프리카에 홍보하는 공공외교 활동, 기업이 아프리카 진출 전 정책 리스크와 네트워크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민간외교 플랫폼의 역할, 외무성과 JICA의 아프리카 전략에 필요한 민간 의견 수렴 및 정보 전달 채널로서의 정책 지원 활동<sup>21)</sup>을 펼친다. 특기할만한 점은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은 퇴직한 고위 관료, 외교관, 기업 간부 등 아프리카 관련 주요 요직을 거친 OB들이라는 점이다. 또 이 임원들은 임기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퇴직 후에도 현지 인맥, 정책 노하우, 비공식 정보망 등을 바탕으로 아프리카협회에서 자문·조언·행사 기획 등을 주도한다. 이처럼 아프리카협회는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일본의 대아프리카 외교 및 민관산학 협력 전략에서 비공식 자문과 정보의 중간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현재 일본 정부의 문화외교 특성은 ‘올 재팬(All Japan)’ 접근 방식을 따른다는 점이다. 김현정(2024: 157-158)에서 올 재

19) <https://www.tufs.ac.jp/iafp/en/ca> 참조.

20) <https://africasociety.or.jp/index.php/top> 참조. 이하 아프리카협회.

21) TICAD 6, TICAD 7을 앞두고 정책제안서를 제출해 ‘TICAD 정보센터 구축’과 ‘일본-아프리카 파트너십 기금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팬은 정부, 민간 기업, 지방 정부, 비정부 조직 등 일본 전체가 통합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전략적 접근을 의미한다.

올 재팬(All Japan) 전략으로 세 가지 주요 목표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는 영토 보전, 역사인식 등에 대한 대외 발신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올바른 이해를 획득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전통 예능과 쿨 재팬을 포함한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여 소프트파워를 강화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일파 및 지일파를 육성하고 외교 환경의 개선을 추진하여, 외교 공관의 인맥과 지식 등의 강점을 활용해 대외 발신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대학 교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STUDY in JAPAN Global Network’ 방식의 프로젝트, 즉 대학은 물론 공공, 민간, 정부기관이 협력하는 올 재팬 접근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대학 + 주아프리카 일본대사관 + JICA + 일본국제협력단(JICE) + 일본 재단(The Japan Foundation) + 일본학생서비스기구(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JASSO) + 아시나가재단(Ashinaga Foundation)

다음 장에서는 일본의 외교 현황과 문화외교가 언론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 2. 『아사히신문』에 나타난 문화외교 담론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대아프리카 문화외교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신문 중 하나인 『아사히신문』에 실린 ‘아프리카’ 키워드 기사를 분석해 보았다. 조사 기간은 중국의 『인민일

보』 기사 분석과 마찬가지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던 때를 기준으로 약 1년 전부터 홈페이지 기사 조사가 가능한 기간이었던 2023년 7월 19일부터 2024년 6월 11일까지 진행했으며, 이 기간에 290건의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중 해외 동정 기사는 162건, 일본 국내 관련 기사는 128건이었다. 해외 동정 기사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해외 동정 관련 주제별 기사 수

주제	기사 수	비율(%)
기후	1	0.6
소말리아해적	3	1.9
러-아프리카 정상회담	4	2.5
중국정책	7	4.3
바그너그룹	9	5.6
스포츠	10	6.2
인사동정·회담	12	7.4
불평등	17	10.5
브릭스·글로벌 사우스	18	11.1
분쟁	43	26.5
국가 동향	46	28.3
합	162	

역시 가장 많은 기사는 국가별 동향이였다. 해당 기간에 큰 이슈가 되었던 수단 내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관한 알제리의 동정, 니제르 쿠데타 등의 분쟁 관련 기사는 특수 상황인 만큼 따로 구분해 보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바그너그룹과 아프리카의 관계에 대한 기사 역시 보였다. 글로벌 사우스와 브릭스(BRICS) 관련 심층기사를 연속으로 다루고 있으며, 2023년 7월 열린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 관련 뉴스도 다루었다. 아프리카 난민과 인종차별에 대한 해외 뉴스 관련

한 후속 보도도 보였다. 특기할 점은 ‘일대일로’ 정책 등 중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을 자세히 분석하고, 중국 정책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응도 다루었다. 위의 조사 내용으로 보면, 대체적인 기사 내용은 대아프리카 정책과 정치·경제에 관련된 것이었다. 문화 관련 기사는 스포츠 관련 기사인데 해외 동정 관련 기사 전체의 약 6.2%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 나라의 동정을 살피는 짧은 기사여도 대체적인 기사들은 간략하게나마 해당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 아니어도 단순한 동정 뉴스로 끝나지 않고 심층 분석한 경우가 많았다. 즉, 아프리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엿보였으며, 중국을 경쟁 상대로 여겨 중국의 정책을 자주 언급하고 분석하면서 중국과 차별화된 정책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일본·아프리카 관련 기사와 연결해서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의 <표 5>는 일본 국내 아프리카 관련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해 본 것이다.

<표 5> 일본 국내 아프리카 관련 주제별 기사 수

주제	기사 수	비율(%)
경제	8	6.3
교류	7	5.5
국제교류	5	3.9
국제정세	16	12.5
국제협력	48	37.5
문화	44	34.4
합	128	

주제별 분류<sup>22)</sup>를 다소 포괄적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기사 한 편이 하

22) ‘교류’는 일본과 한 국가의 양자 교류, ‘국제교류’는 다자간 교류로 구분하였다. 또 이후 예를 든 『아사히신문』 기사의 링크는 외국 저널 특성상 회원가입을 해야 읽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나의 주제나 분야로 구분되지 않고 여러 분야를 복합적으로 다룬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 할례를 다룬 SDGs·인권 관련 기사에서는 할례에 대한 여러 경험담부터, 여성 인권의 문제에서 ‘여성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택권을 어느 정도까지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시켜 여성 할례, 여성 인권 문제를 서구 중심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여성 주체와 이증жат대 등의 문제로 확대해 기사화했다.<sup>23)</sup> 이와 마찬가지로 ‘국제협력’ 분야는 기후, 전쟁, 교류, 자연, 교육, 인권, 환경, ODA, 문화 등 다방면의 주제를 함께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제를 세분화하기가 특히 어려웠다. ‘경제’ 분야도 경제 교류나 자원외교 시 인적자원, 인재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거나, 자원외교는 규모가 아니라 세부적인 지원책과 같은 패키지로 경쟁해야 한다는 기사, 중국 자원외교를 소개하면서 중국과 차별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기사,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남반구와의 ‘공급망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기사에서도 상대국의 사회문제를 이해해야 하는 민관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 등 각 분야의 연계 대책을 제시하고, 상대국과 깊이 있는 교류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프리카에 관한 일본 국민의 이미지 향상과 올바른 이해, 호혜적 관계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기사도 많이 보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과 교류가 아프리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sup>24)</sup> 또한 국제교류협력

23) 「여성의 자율성과 전통... 논란: 여성할례로 고통받는 소녀들, 그들의 몸은 누가 소유하는가?」(2024.6.2.).

24) 말라리아 예방과 퇴치를 위한 일본의 지원은 결국 전 세계에 유용할 것이라는 「Globe 297호 <말라리아 퇴치> 기온 상승이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2024.2.18.), 국제 의료와 지역 의료가 모두 같은 뿌리, 쿠루미야의 순회 의료 활동」(2024.1.18.), 「영화의 미래, 아프리카, 대형 스튜디오, 환경과 다양성, 서브 컬처 인기, 일본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기회」(2023.12.13.).

단 봉사자의 경험담을 지속 게재함으로써 아프리카 봉사라는 개념보다 상호 이해의 개념을 독자에게 심어주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내용을 보면 봉사자는 아프리카 봉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일본 내에서 아프리카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또 외국인에게는 일본 지역 문화를, 일본인에게는 아프리카 문화를 알리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고 있는 일본 거주 아프리카인에 대한 기사도 볼 수 있다.<sup>26)</sup> 아프리카 재난과 재해에 대한 뉴스에서도 사건 전달뿐 아니라, 재난과 재해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해당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다루어 상대국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 기사<sup>27)</sup>, 말라리아나 기후 관련 기사에서 보듯이 심층 기사와 연속 기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놀라운 점은 일본의 미래 세대가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친근하게 접근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행사와 교육 관련 기사도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나 만화 등의 접근성 좋은 콘텐츠를 이용한 교육자료를 제작했다는 기사<sup>28)</sup>,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SDGs 관련 토론 수업의 방식과 주제에 대한 기사<sup>29)</sup>, 어린이가 참여하는 아프리카 관련 행사에 대한 기사<sup>30)</sup>, 요리 관련 서평 등을 통해 아프리카 음

25) 「해외 교육 지도 “교사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2023.7.21.), 「해외 협력 자원 봉사자로 아프리카에 다녀온 초등교사 테라몬의 수업」(2024.2.19.)

26) 「아사고에서는 남아공 출신 쌍둥이 형제가 투어 및 숙박, 자전거 투어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를 한다」(2024.4.19.), 「정치적 불안정에 빠진 에티오피아를 떠나 함께 모인 이들」(2024.5.20.).

27) 「‘할카’가 논설위원이던 광장의 행방」(2023.9.24.), 「서사하라의 비극을 자전거 세계 일주로 알리고 있는 스웨덴 부부 활동가」(2023.9.26.), 「재해 피해를 입은 모로코에 영화를 통한 지원」(2023.10.13.).

28) 「일본 해외 협력 봉사단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영화 ‘교차로’ 상영」(2024.4.14.), 「만화가 호시노 씨, 주일 외국 아동의 유치원·보육원 생활 수업 지도서 발간」(2024.4.9.).

29) 「SDGs에 대해 배우다」(2023.7.25.), 「SDGs. 답이 없는 사회 과제는 스스로 ‘해결’해 나아간다. 고등학교·대학 연계 학습」(2024.2.20.).

30)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봉제 인형 기념제」(2023.10.4.), 「세계의 아이들이 그

식과 그에 얽힌 문화를 소개하는 기사<sup>31)</sup> 등이 그 예이다.

‘교류’ 항목의 흥미 있는 기사 중 「NPO 법인 ‘바다의 나라 재팬’ 대표 시라이시 유리코<sup>32)</sup>는 지금까지 살펴본 아프리카 관련 일본 국내 기사의 모든 특징뿐 아니라 현재 일본이 추구하는 외교정책인 쿨 재팬과 올 재팬의 특성을 모두 담고 있는 문화외교의 한 형태로 ‘스리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스리미 프로젝트란, 선어를 갈아서 가공하는 일본의 전통음식으로 어묵과 유사한 일본 전통 가공 수산물 ‘스리미(Surimi)’ 제조 방식을 코트디부아르 여성들에게 전수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NPO ‘바다의 나라 일본’과 ‘생선우먼즈포럼(WFF)’의 리더인 시라이시를 중심으로 펼치는 자발적 활동이다. 강사 4명의 평균 연령은 75세이고, 특히 리더 시라이시는 최연장자인 90세로 이들은 친근한 ‘엄마’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또 코트디부아르와 일본이 모두 ‘바다의 나라’라는 공통점을 앞세워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 활동가들은 2016년부터 매년 1, 2회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을 방문해 여성들 대상으로 1주일에서 1달 반 정도 교육을 해왔는데, 스리미 제조 방식 워크숍을 열면서 읽고 쓰기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코트디부아르 여성들이 스리미를 제조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육을 받는 코트디부아르 여성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여성 지위가 향상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실제로 교재의 표제가 ‘스리미를 만들면, 인생이 바뀐다!’이다. 처음에는 민간의 자율적 교류 활동이었으나, 2022년 4월에는 일본 정부의 원조로 아비장에 조리실과 탁아소가 있는 ‘스리미연수센터’를 건립했다. 23년 4월에는 그동안의 공헌을 인정받아 시라이시가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으로부터 농사공로훈장을 받았다. 시라이시를 비롯한 활동가들은

---

리는 환경 문제 80 작품 전시」(2023.10.20).

31) 「(Taste the World: 3) 부르키나파소: 나눔의 정신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스튜」(2023.8.10.), 「(인생 레시피) 쉐부젠Chebujen 냄비 하나로 완성, 다른 문화에 눈을 뜨다」(2023.9.8.).

32) 2024.1.2.

코트디부아르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글배우기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해당 기사가 소개하는 스리미프로젝트는 식량안보와 여성의 지위 향상 등 코트디부아르의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개인적 교류가 민간단체 교류로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개인과 민관 협력 방식의 긍정적인 모델이다. 내용 역시 일본의 전통음식 문화를 유대감을 형성하며 전한다. 이 내용을 일본에 소개하면서 코트디부아르의 현황과 문화의 소개가 함께 이루어진다. 즉, 깊이 있는 문화적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위의 <표 5>에서 ‘문화’ 관련 주제는 34.4%나 차지하고 있지만, ‘문화’ 키워드 기사가 아니어도 아프리카와의 관계에 문화적 접근을 같이 다룬 기사가 많아서 실제로 문화 관련 내용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조사기간 동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기사가 1건도 없다는 점은 중국 정책에 대한 심층 보도를 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루었다. 즉, 『아사히신문』 기조를 통해 본 일본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은 아프리카와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을 상당히 참고하고 견제하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거시적·가시적인 인프라 건설 사업을 많이 펼치는 중국에 비해, 일본은 지역공동체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후생 향상에 목적을 둔 특수사업이나 교육,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 역량개발에 초점을 둔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한다. 또한 일본이 선택한 차별화 정책은 문화외교이다. 중국의 문화외교가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일본은 쿨 재팬 전략의 상호 유대감 형성을 바탕으로, 민관산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올 재팬 전략을 펼치며 일·아프리카 관계의 강한 지속성을 추구하고 있다.

#### IV. 맺음말

아프리카는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 인구, 환경,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기 다른 전략과 가치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문화외교이다. 아프리카 대륙이 국제사회에서 문화적 영향을 확장하고 있는 이때, 대아프리카 문화외교는 자국의 독특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문화외교 정책과 실행 양상을 비교하여, 문화외교가 어떻게 국가 이미지, 영향력, 연대감 형성에 활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의 『인민일보』와 일본의 『아사히신문』 보도를 통해 양국 문화외교의 담론 구조와 전달 방식의 차이를 파악해 보았다.

중국은 정부 주도형 외교를 통해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공자학원, 중국문화센터, 루반공방 등 문화 및 교육 인프라 사업이 있으며, 이는 국가 이미지 제고뿐 아니라 기술력 홍보 및 친중 성향 인재 양성에도 목적이 있다.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의 최근 아프리카 관련 기사들은 ‘일대일로’ 10주년을 계기로 중국의 문화외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교육·문화·청년 교류 관련 기사가 다수 존재하며, 이는 전략적·상징적 메시지를 내포한 이미지 구축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쿨 재팬과 올 재팬 전략을 바탕으로 문화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많은 정책은 민관산학이 연계된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역공동체 중심의 특화 사업이나 교육 교류 등 인적 교류 중심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대표 신문 중 하나인 『아사히신문』의 아프리카 관련 기사 중 상당수는 중국과의 비교 프레임, 아프리카에 대한 깊이 있는 문화적 접근, 교육 중심 기사들로 이루어졌다. 특히 문화가 포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일본의 정서 중심, 감성 외교 전략이 반영된 보도 방식이 특징이다.

중국과 일본의 대아프리카 문화외교는 모두 국가 이미지 제고와 우호적 관계 구축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니고 있으나, 실행 방식과 전략적 초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상징적 건축, 언어·기술 교육, 미디어를 통한 정부 중심의 강력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민간, NGO, 학계 등이 연계된 올 재팬 전략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연대감 형성이라는 감성적 접근을 중시하며, 교육 교류를 중시하고, 지역사회와의 실질 협력 등 아프리카 현지의 자생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문화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문화외교는 점점 더욱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외교 전략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와의 외교에서 아시아 내에서 한국보다 오랜 경험이 있는 타국의 문화외교 성격과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한국의 문화외교 정책 수립 시 문화 자원의 활용 방식을 비롯한 차별화된 전략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필동(2014), 「일본의 문화외교정책 -「가치외교」론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100권, 한국일본학회, 211-224.
- 김현정(2024), 「일본 문화외교 속의 정치성 탐구 -재팬하우스의 탄생과 전개-」, 『일본문화연구』, 92호, 동아시아일본학회, 155-179.
- 박전열 외(2013), 「일본의 ‘문화입국론’과 쿨·재팬 전략」, 『일본연구』 34,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83-300.
- 박종대(2024.6.28.),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결산: 성과, 교훈 그리고 과제」, 『아프리카 위클리』. [https://africanstudy.jams.or.kr/co/com/EgovMenu.kci?s\\_url=/mobile/po/community/notice/noticeView.kci&s\\_MenuId=MENU-000000000061000&notiSeq=000000042327](https://africanstudy.jams.or.kr/co/com/EgovMenu.kci?s_url=/mobile/po/community/notice/noticeView.kci&s_MenuId=MENU-000000000061000&notiSeq=000000042327) (검색일: 2025.4.10.)
- 배묘정(2024), 「현대일본의 문화외교와 퍼포먼스의 정치학-일·월(日越) 수교 50주년 공연을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제60집,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3-52.
- 변웅(2013), 「중국-일본의 대아프리카 전략 분석 및 한국적 함의」, 『주요 국제문제분석』 32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1-24.
- 서정경(2024), 「중국의 대(對) 약소국 외교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 ‘일대일로’: 신국제질서를 추구하는 중국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교합」, 『아시아 리뷰』 제14권 제2호(통권 31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5-83.
- 안지영(2020), 「중국 공공외교 전략과 수행방식 변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7호, 한국콘텐츠학회, 169-184.
-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hdr.undp.org/system/files/documents/hdr1994encompleteenostats.pdf> (검색일: 2025.5.5.)

이종섭(2022.2.15.), 「중국의 아프리카 상대 ‘초상화 외교’ ... 40개국에 대통령궁 등 건설 ‘환심 사기」,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202151541001> (검색일: 2024.9.15.)

『아사히신문』 기사(2024.6.2.), 「여성의 자율성과 전통... 논란: 여성할례로 고통받는 소녀들, 그들의 몸은 누가 소유하는가?」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530%2C17%2C9550121&page=32&idx=156&\\_idx=249&kijiid=A1001120240602M004-13-001&iref=pc\\_articletab\\_article](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530%2C17%2C9550121&page=32&idx=156&_idx=249&kijiid=A1001120240602M004-13-001&iref=pc_articletab_article) (검색일: 2024.8.10.)

\_\_\_\_\_ (2024.5.20.), 「정치적 불안정에 빠진 에티오피아를 떠나 함께 모인 이들」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517%2C18%2C9543923&page=30&idx=146&\\_idx=233&kijiid=A1001120240520MTK E-1A-001&iref=pc\\_articletab\\_article](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517%2C18%2C9543923&page=30&idx=146&_idx=233&kijiid=A1001120240520MTK E-1A-001&iref=pc_articletab_article) (검색일: 2024.8.9.)

\_\_\_\_\_ (2024.4.19.), 「아사고에서는 남아공 출신 쌍둥이 형제가 투어 및 숙박, 자전거 투어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를 한다」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419%2C18%2C9543923&page=30&idx=146&\\_idx=233&kijiid=A1001120240520MTK E-1A-001&iref=pc\\_articletab\\_article](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419%2C18%2C9543923&page=30&idx=146&_idx=233&kijiid=A1001120240520MTK E-1A-001&iref=pc_articletab_article)

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416%2C23%2C9532135&page=26&idx=126&s\_idx=201&kijiid=A1001220240419MHGA-1A-004&iref=pc\_articletab\_article (검색일: 2024.8.9.)

\_\_\_\_\_(2024.4.14.), 「일본 해외 협력 봉사단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영화 ‘교차로’ 상영」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406%2C6%2C9528155&page=25&idx=121&s\\_idx=193&kijiid=A1001120240414MKNC-1A-003&iref=pc\\_articletab\\_article](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406%2C6%2C9528155&page=25&idx=121&s_idx=193&kijiid=A1001120240414MKNC-1A-003&iref=pc_articletab_article) (검색일: 2024.8.9.)

\_\_\_\_\_(2024.4.9.), 「만화가 호시노 씨, 주일 외국 아동의 유치원 · 보육원 생활 수업 지도서 발간」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406%2C6%2C9528155&page=25&idx=121&s\\_idx=193&kijiid=A1001120240409MKNC-1A-002&iref=pc\\_articletab\\_article](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406%2C6%2C9528155&page=25&idx=121&s_idx=193&kijiid=A1001120240409MKNC-1A-002&iref=pc_articletab_article) (검색일: 2024.8.9.)

\_\_\_\_\_(2024.2.20.), 「SDGs. 답이 없는 사회 과제는 스스로 ‘해결’해 나아간다. 고등학교 · 대학 연계 학습」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

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218%2C2%2C9508052&page=20&idx=96&s\_idx=153&kjiiid=A1001120240220MMGA-SA-004&iref=pc\_articletab\_article (검색일: 2024.8.8.)

\_\_\_\_\_(2024.2.19.), 「해외 협력 자원봉사자로 아프리카에 다녀온 초등학교사 테라몬의 수업」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218%2C2%2C9508052&page=20&idx=96&s\\_idx=153&kjiiid=A1001220240219MKYE-1A-002&iref=pc\\_articletab\\_article](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218%2C2%2C9508052&page=20&idx=96&s_idx=153&kjiiid=A1001220240219MKYE-1A-002&iref=pc_articletab_article) (검색일: 2024.8.8.)

\_\_\_\_\_(2024.2.18.), 말라리아 예방과 퇴치를 위한 일본의 지원은 결국 전 세계에 유용할 것이라는 「Globe 297호 <말라리아 퇴치> 기온 상승이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list.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218%2C2%2C9508052&page=20&idx=96&s\\_idx=153&kjiiid=&iref=pc\\_articletab\\_btn](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list.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218%2C2%2C9508052&page=20&idx=96&s_idx=153&kjiiid=&iref=pc_articletab_btn) (검색일: 2024.8.8.)

\_\_\_\_\_(2024.1.18.), 「국제 의료와 지역 의료가 모두 같은 뿌리, 쿠루미야의 순회 의료 활동」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

&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114%2C35%2C9491660&page=17&idx=81&s\_idx=129&kjiiid=A1001420240118M-ME-1A-001&iref=pc\_articletab\_article (검색일: 2024.8.8.)

\_\_\_\_\_ (2024.1.2.), 「NPO 법인 ‘바다의 나라 재팬’ 대표 시라이시 유리코」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114%2C35%2C9491660&page=17&idx=81&s\\_idx=129&kjiiid=A1102120240121M004-Z8-02&iref=pc\\_articletab\\_article](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40114%2C35%2C9491660&page=17&idx=81&s_idx=129&kjiiid=A1102120240121M004-Z8-02&iref=pc_articletab_article) (검색일: 2024.8.8.)

\_\_\_\_\_ (2023.12.13.), 「영화의 미래, 아프리카, 대형 스튜디오, 환경과 다양성, 서브 컬처 인기, 일본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기회」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31208%2C8%2C9477766&page=14&idx=66&s\\_idx=105&kjiiid=A1001120231213E001-04-003&iref=pc\\_articletab\\_article](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31208%2C8%2C9477766&page=14&idx=66&s_idx=105&kjiiid=A1001120231213E001-04-003&iref=pc_articletab_article) (검색일: 2024.8.7.)

\_\_\_\_\_ (2023.10.20.), 「세계의 아이들이 그리는 환경 문제 80 작품 전시」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



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30925%2C6%2C9443920&page=2&idx=6&s\_idx=9&kijiid=A1001120230926MMGA-1A-001&iref=pc\_articletab\_article (검색일: 2024.8.7.)

\_\_\_\_\_(2023.9.24.), 「‘할카’가 논설위원이던 광장의 행방」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page=1&idx=1&s\\_idx=1&kijiid=A1001120230924M003-13-007&iref=pc\\_articletab\\_article](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u>E5%B9%B409%E6%9C%8819%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page=1&idx=1&s_idx=1&kijiid=A1001120230924M003-13-007&iref=pc_articletab_article</u>) (검색일: 2024.8.7.)

\_\_\_\_\_(2023.9.8.), 「(인생 레시피) 켄부젠Chebujen 냄비 하나로 완성, 다른 문화에 눈을 뜨다」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E5%B9%B407%E6%9C%8825%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30905%2C21%2C9435348&page=9&idx=41&s\\_idx=65&kijiid=A1001120230908M025-13-002&iref=pc\\_articletab\\_article](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3&from=2023%<u>E5%B9%B407%E6%9C%8825%E6%97%A5&to=2024%E5%B9%B406%E6%9C%8811%E6%97%A5&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30905%2C21%2C9435348&page=9&idx=41&s_idx=65&kijiid=A1001120230908M025-13-002&iref=pc_articletab_article</u>) (검색일: 2024.8.7.)

\_\_\_\_\_(2023.8.10.), 「(Taste the World: 3) 부르키나파소: 나눔의 정신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스투」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2&from=&to=&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30806%2C9%2C9422947&page=4&idx=16&](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2&from=&to=&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30806%2C9%2C9422947&page=4&idx=16&)

s\_idx=25&kijiid=A1001120230810M022-13-004&ieref=pc\_articletab\_article (검색일: 2024.8.7.)

\_\_\_\_\_ (2023.7.25.), 「SDGs에 대해 배우다」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2&from=&to=&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30722%2C12%2C9415949&page=2&idx=6&s\\_idx=9&kijiid=A1001120230725MSMA-SA-004&ieref=pc\\_articletab\\_article](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2&from=&to=&MN=default&searchsort=2&inf=&sup=%2BN.NR%3B0%2C20230722%2C12%2C9415949&page=2&idx=6&s_idx=9&kijiid=A1001120230725MSMA-SA-004&ieref=pc_articletab_article) (검색일: 2024.8.7.)

\_\_\_\_\_ (2023.7.21.), 「해외 교육 지도 “교사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2&from=&to=&MN=default&searchsort=2&inf=&sup=&page=1&idx=1&s\\_idx=1&kijiid=A1001220230721MKYE-1A-003&ieref=pc\\_articletab\\_article](https://digital.asahi.com/article_search/detail.html?keyword=%E3%82%A2%E3%83%95%E3%83%AA%E3%82%AB&FormRadioSelect=select_keyword&searchcategory=2&from=&to=&MN=default&searchsort=2&inf=&sup=&page=1&idx=1&s_idx=1&kijiid=A1001220230721MKYE-1A-003&ieref=pc_articletab_article) (검색일: 2024.8.6.)

『인민일보』 기사(2023.9.8.), “Chinese tech firm supports new Luban Workshop in Kenya to boost technical training”. <https://en.people.cn/n3/2023/0908/c90000-20069347.html> (검색일: 2024.08.18.)

\_\_\_\_\_ (2023.9.22.), “Chinese spacecraft took my dream into space”.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3-06/07/nw.D110000renmrb\\_20230607\\_12-02.htm](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3-06/07/nw.D110000renmrb_20230607_12-02.htm) (검색일: 2024.8.18.)

일본국제협력기구 <https://www.jica.go.jp/english/activities/> (검색일: 2024.7.8.)

일본도쿄대학 iafp <https://www.tufs.ac.jp/iafp/en/ca> (검색일: 2024.7.7.)

일본외무성 <https://www.mofa.go.jp> (검색일: 2024.7.7.)

일본 문부과학성 <https://www.mext.go.jp/> (검색일: 2024.7.7.)

일본 일반사단법인 아프리카협회 <https://africasociety.or.jp/index.php/top> (검색일: 2024.7.9.)

- 일본홋카이도대학루사카사무소 <https://www.hokkaido-university-lusakao-office-zm.com/> (검색일: 2024.7.8.)
- 일본홋카이도대학루사카사무소 니지이로 <https://wp3.tufs.ac.jp/nijihiro/ko/zambia-hokkaido-university/> (검색일: 2024.7.8.)
- 일본홋카이도대학-잠비아대학 국제 수의학 및 보존의학 교육 프로그램 <https://africa.vetmed.hokudai.ac.jp/en/> (검색일: 2024.7.8.)
- 중국 공자학원 <https://www.ci.cn/> (검색일: 2024.7.14.)
- 중국문화부 [https://www.mct.gov.cn/whzx/zsdw/zywhglgbxy/202407/t20240705\\_953909.html](https://www.mct.gov.cn/whzx/zsdw/zywhglgbxy/202407/t20240705_953909.html) (검색일: 2024.7.10.)
- 중국 루반공방 <http://www.lubanworkshop.cn/> (검색일: 2024.7.14.)
- 중국외교부 [https://www.mfa.gov.cn/web/wjzbzhd/202112/t20211202\\_10461174.shtml](https://www.mfa.gov.cn/web/wjzbzhd/202112/t20211202_10461174.shtml) (검색일: 2024.7.9.)

❖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and Japan's  
Cultural Diplomacy toward Africa:  
Strategies and Media Discourses

Kim, Young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cultural diplomacy strategies of China and Japan toward Africa, focusing on both governmental policies and media representations between July 2023 and June 2024. China has expanded its influence through state-led initiatives such a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Confucius Institutes, and Luban Workshops, emphasizing educational cooperation and cultur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nversely, Japan promotes cultural diplomacy through the “Cool Japan” initiative and an “All-Japan” approach, engaging public, private, and academic actors to strengthen mutual understanding and regional development. By analyzing articles from *the People's Daily* and *the Asahi Shimbun*, this research highlights how each country's discourse reflects distinct diplomatic logics: China's top-down strategic outreach versus Japan's community-based, soft power-oriented engagement. Findings revealed not only differing conceptions of cultural influence, but also broader implications for East Asian diplomacy in Africa. This comparative analysis offers insights into how cultural diplomacy can shape long-term international partnerships in a multipolar world.

Keywords: Africa, Cultural Diplomacy, China, Japan, the People's Daily,  
the Asahi Shimbun

■ 논문투고일 : 2025. 05. 10

■ 심사완료일 : 2025. 06. 01

■ 게재확정일 : 2025. 06. 09

